

# 연금 시장 리뷰

##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2013년 미국 경기 진단- 하반기, 빠른 회복 기대

## 퇴직연금

- 동향 :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
- 이슈 : 금융위기 후 금융소비자보호 추세와 FP의 새로운 기회
- 퇴직연금통계 : 2012년 9월말

##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3/4분기 소득 증가에도 가계소비성향은 역대 최저

-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3/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소득은 소폭 증가하였지만 경기 불황으로 가계의 소비성향은 2분기 연속 역대 최저치로 하락
  - 가계소득·소비 모두 증가: 전국의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14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3% 늘어났고 명목 소비지출도 246.7만원으로 1.0% 증가
  - 소비 심리 위축 지속: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기준으로는 소득이 4.6% 늘었지만 소비는 오히려 0.7% 줄었고, 평균 소비성향도 73.6%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내 가계의 소비 심리 위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개선은 2013년 이후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 동향: 국내 금융시장 보합

- 미국의 재정절벽과 그리스 재정감축 노력에 대한 트로이카 간 불협화음 등 해외 리스크에도 외국인 투자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강보합을 유지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1월 9일 2.79%에서 11월 23일 현재 2.84%로 소폭 상승
  - 원/달러 환율은 환율 방어를 위한 국가들의 외환시장 개입이 증가하면서 11월 9일 1,087.5원에서 11월 23일 현재 1,085.5원으로 2원 하락
  -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따른 경기 회복의 기대감과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지속되면서 11월 9일 1,904.4에서 11월 23일 1,911.3로 6.9p 상승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2/4	11월9일	11월26일
실물 지표	GDP성장률(%)	3.6	4.2	3.4	3.4	3.4	2.8	2.4	-	-
	산업생산(%)	7.0	10.6	7.2	5.3	5.3	4.2	1.5	0.7	-
	소비자물가(%)	4.0	4.5	4.2	4.8	4.2	3.0	2.4	2.0	2.1
	실업률(%)	3.4	4.2	3.4	3.1	3.0	3.8	3.3	2.9	2.8
	경상수지(억달러)	276.5	26.1	54.9	69.0	126.7	25.6	111.4	23.6	60.7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2	3.80	3.68	3.60	3.41	3.45	3.39	2.79	2.84
	원/달러(원)	1,107.9	1,119.8	1,083.2	1,085.1	1,143.9	1,131.3	1,152.1	1,087.5	1,085.5
	코스피지수(P)	1,825.7	2,106.7	2,100.7	1,769.6	1,825.7	2014.0	1,854.0	1,904.4	1,911.3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2012년 2/4분기 GDP성장률은 전망치며, 11월 9일은 9월, 11월 23일은 10월 수치임.

## □ 경제 이슈: 2013년 미국 경기 진단- 하반기, 빠른 회복 기대

### ■ 미국 경제 지표 혼조세 지속

미국 경제는 2012년에도 뚜렷한 경기 추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혼조세를 보였다. 최근 주택과 고용, 소비 지표 등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투자와 수출 지표는 아직도 부진을 보이고 있다.

### ■ 미국 경기 회복 가능성 진단

소비 비중이 큰 미국 경제의 특성상 2013년 미국 경제의 향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소비, 부동산 경기, 고용시장, 재정지출 등의 개선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이들 부문을 점검해 보면, 2013년 미국 경제의 회복세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소비 여건 개선이다. 실질소득이 플러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일인당 실질가처분소득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소비 지출 증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소비자심리지수도 개선되어 향후 소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다. 둘째, 주택시장이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기존주택 재고 감소와 주택 구입 여유지수 개선 등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선행지표인 주택 시장지수(HMI)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또한 신규주택 착공과 허가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주택 판매 증가 추세도 이어질 것이다. 주택 수요를 나타내는 기존주택 판매도 전년동월대비 플러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공급과 수요 모두 증가하고 있어 주택시장 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다. 셋째, 고용시장이 개선되었다.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실업률이 7%대에 머물고 있다. 장기실업자 비중이 감소하고 실업 기간 감소 등 노동의 이동성이 증가하여 고용 구조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공급자협회의 고용지수도 상승하고 있어 향후 채용도 늘어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다. 재정절벽과 관련된 정책의 불확실성은 2012년 경제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오바마의 재선은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바마의 재선 이후 재정지출 감소와 과세 계획,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한 '대타협(Grand Bargain)'이 진행되어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 시사점

최근 주택 시장과 고용 시장의 회복세는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재정절벽의 위험 요인 존재로 미국 경제의 회복은 2013년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의 회복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강화로 인한 통상마찰 등의 불안 요인이 존재한다. 점증하는 직·간접적 통상 마찰과 유동성 증가에 따른 원화 가치 상승과 국내 외환 시장 불안정에도 대비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홍준표 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mailto:jphong@hri.co.kr)),  
임희정 연구위원 (2072-6218, [limhj9@hri.co.kr](mailto:limhj9@hri.co.kr))

□ **동향: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  
(11/2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요약)

○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수가인상(안)을 확정**

○ 먼저,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

- 다만,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2년 5,619원(보수월액의 0.38%)에서 **'13년 5,709원(보수월액의 0.39%)으로 평균 90원 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예) 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5.89%)×장기요양보험료율(6.55%)

○ 보건복지부는 요양수요를 감안하여 **2017년까지 전체 어르신의 7%수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

\* 장기요양 인정자 ('12년9월) 33.6만명 → ('13년말) 38.9만명

\* 장기요양대상자 확대를 위한 점수 인하 ('12년) 53점→ ('13년)51점

- 또한, 현재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

\* 감경기준 ('12년) 건강보험료 20,800원/월 → ('13년)건강보험료 52,100원/월

\* 감경대상자(본인부담액의 1/2 감경, 시설 10%, 재가 7.5%) ('12년) 28천명 → ('13년) 67천명

\* 감경예시(3등급자 방문요양 1일4시간 월20일 이용): (현행)119,200원→(변경)59,610원

○ 내년도 수가 조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

- 첫째, 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하여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월 10만원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급예시)월160시간 근무 요양보호사: 1일8시간=5,000원×20일=10만원  
 월80시간 근무 요양보호사: 1일4시간=2,500원×20일= 5만원

- 둘째, 치매, 독거노인 등의 주.야간보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설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수가를 가산 지급함

\* 주·야간보호기관 이동서비스 비용 지급(안)

2,200원	4,000원	6,600원	10,000원
5Km 이내	5-10Km	10-20Km	20Km이상

- 특히,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이상 이용하는 어르신에게는 월 한도액 50%를 추가 적용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음
- \* 월한도액(3등급이용자기준): (현행)878천원 → (변경)1,318천원

- 셋째,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하여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현실을 반영하여 수가를 7% 인상.
- 아울러,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전문요양 시설 등의 일당수가 2.4%를 인상

- 이번에 심의된 내년도 장기요양수가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여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는 금번 수가 인상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이 한단계 향상되고, 특히 치매.독거 등 요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

## □ 이슈 : 금융위기 후 금융소비자보호 추세와 FP의 새로운 기회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투자은행이 파산 또는 타 금융기관으로 인수·합병되고 한때 14000포인트에 달했던 다우존스 지수는 반토막 아래로 추락하고 GM 등 미국의 우수기업마저 파산하는 등 미국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자국에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로 급속히 파급되어 아시아-유럽 증시가 동반 폭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극심한 불안정 속에 세계경제는 경기침체의 긴 터널에 빠져들었다.

이에 미국, EU, 아시아 등 주요국 정부는 G20를 중심으로 다자간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부신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국에서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개혁안을 추진하고 정부가 시장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케인지안적 정책처방을 내리게 되었다. 미국에서 Dodd-Frank 금융개혁법이 도입되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청(CFPB)이 설치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여기에서 2011년 파리 G20 정상회의에서 OECD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10대 원칙이 채택되는 등 금융위기 후 금융소비자보호는 두드러진 뉴 노멀(New Normal)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제정을 추진하는 폭넓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 정부에서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법안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체계화하여 기능별 규제제도와 판매행위 규제원칙, 위반자에 대한 제제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업종으로 금융상품자문업 도입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자문업 서비스가 개선됨은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더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 금융시장에서 초기의 富의 축적기에는 상품판매가 시장 우위를 점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과도적 이행기에는 자문업이 판매업의 규모로 성장했으며 2000년대 이후 富의 관리기에는 자문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미국에서 금융자문업은 DC플랜과 같은 퇴직연금시장이 성장하면서 독립계 FP 회사들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금융자문업이 도입되면 판매시장으로부터 자문시장 위주로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과 퇴직연금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종합적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처럼 국내 독립계 FP들을 중심으로 금융자문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FP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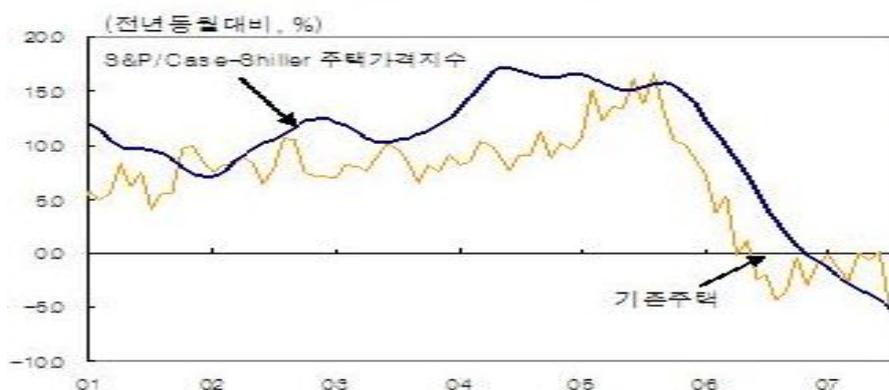
그러나 FP들은 이러한 새로운 기회와 더불어 앞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인의무(Fiduciary Duty)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등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이 요구되므로 전문성과 함께 윤리성을 함께 갖추어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전문가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뉴 노멀(New Normal)

### ○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원인

-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신용경색(credit crunch)으로 인해 100년 이상 역사를 자랑하는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타 금융회사에 합병되거나 은행 지주회사로 전환 되는 등 미국 경제는 대공황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
- 미국 5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베어스텰스가 2008년 3월 JP 모건체이스에 인수되었고 9월에는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했으며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
- 세계 최대 보험회사 중 하나인 AIG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사실상 국유화.
- 이러한 금융위기는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파급되어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아이슬랜드는 IMF 구제금융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아시아-유럽 주요 증시가 폭락하고 우리나라 KOSPI도 한때 사상 최고치인 2064p를 기록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938p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음.
- 글로벌 금융위기의 일차적인 원인은 IT버블 붕괴 이후 유지되어 온 저금리 기조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무리한 확대, 2004년 이후 단계적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버블 붕괴로부터 찾을 수 있음.

< 금융위기 전 미국 주택가격 변동추세 >



출처 : 금융감독원 조사자료

- 여기에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대출자산을 유동화시키기 위한 과도한 증권화(Securitization)를 추진했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복잡하게 구조화된 대출관련 파생상품들이 무분별하게 거래되면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됨.

- 주택과 관련된 주택저당채권(MBS),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주택가격 급락과 서브프라임 대출 연체증가로 주택담보부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대규모 부실이 전 세계로 도미노처럼 파급됨.
- 투자은행들은 각종 첨단 금융기법으로 레버리지를 확대하고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을 무리하게 개발하여 금융회사 자신들도 스스로 리스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음.

## ○ 규제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추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과거 수십년간 방만하게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 기초한 규제완화 추세가 급격히 퇴조하고 신 금융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경제정책 측면에서 케인지안(Keynesian)이 부상하게 된 것을 들 수 있음.
-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시장개방 등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의 추세 속에서 방만한 감독시스템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방치했음.
-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Dodd-Frank 금융개혁법을 제정하여 금융규제 강화에 나섰고 정부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공적자금을 신속히 투입하는 구제금융안,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처방 등으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게 됨.
- 여기에도 세계 주요국은 G20을 중심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갔음.
- G20은 기존 선진국 중심의 G7에다 유럽의 의장국, 신흥시장 12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초기에는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상회의로 확대
- 2010년 10월 서울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 개최
- 마지막으로 금융위기 이후 두드러진 각국에서의 뉴 노멀(New Normal) 현상 중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들 수 있음.
- 미국에서 Dodd-Frank 금융개혁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을 FRB 산하에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로 설치

- CFPB는 연준, 통화감독청 등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 보호기능 통합하여 설치하고 독자적인 인사 및 예산권을 가지며 소비자보호청장은 상원의 제청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 (현재 Richard Cordray)

< 주요국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

구 분	미 국		영 국	캐나다	호 주	한 국
	종 전	금융개혁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유무	X	O	X	O	O	추진중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및 특징	FRB, OCC, SEC 등 권역별 감독기구가 건전성감독, 금융소비자보호 동시 수행	CFPB신설	- 금융감독원 (FSA)은 소비자 보호를 전담 - 건전성 규제는 영란은행 산하에 건전성감독원 (PRA)을 설치하여 이관할 예정	FCAC	ASIC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 소비자보호원, 기능별 업무수행

출처: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 II.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추진

### ○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각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 속에 2011년 11월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OECD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10대 원칙이 승인됨.
- 구체적으로 ①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규제 및 감독의 구조, ②감독기구의 역할, ③소비자에 대한 공정, 공평한 대우, ④공시와 투명성, ⑤금융교육과 인지도, ⑥금융서비스 제공자와 대리인의 책임있는 영업행위, ⑦사기와 오용으로부터 소비자 자산의 보호, ⑧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⑨불만처리와 보상, ⑩경쟁 등에 대한 기본원칙을 포함함.
-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제정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음.

○ 추진경과

- 어느 나라에서나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본질적으로 능력, 정보 및 자원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함.
-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금융개혁 추세에 주목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18대 국회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음.
- 정부에서도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청회까지 개최했으나 임기만료로 의원제출 법안들과 함께 자동 폐기됨.
- 그러나 19대 국회가 구성된 직후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재제출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 기능별 규제와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상품 판매 관련 행위를 개별업법에서 규제하기 보다는 통합법 하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능별규제 체제를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기능별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공통적인 속성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어 금융상품의 유형을 예금성, 대출성, 보장성, 투자성 상품으로 구분
- 이러한 기능별 규제는 위의 네 가지 상품(Element) 유형에 직판, 대리•중개, 자문의 세가지 행위(Activity) 규제가 부과되므로 기능별 규제는 4x3 매트릭스에 따라 12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됨.
- 자문이란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로서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개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주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행위규제임.
-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추진배경은 최근 우리사회의 고령화 진전과 축적된 금융자산의 증가 등으로 자산관리, 재무설계 등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포괄적 자문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중립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됨.

< 금융상품자문업 도입안 >

1. 금융상품자문업의 정의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상품 구매 결정을 위한 자문에 응하는 금융업
2. 진입자격 : 법인으로 제한
3. 자본금 요건 : 5억원
4.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자문에 응해야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자문업무를 수행
5. 이해상충 방지
  - 금융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겸영할 경우 양업종간 겸직금지
  - 금융판매업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형태의 재산상의 이익 수취금지
6. 시행시기 : 법 시행 이후 1년간 유예기간 부여

출처: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판매채널의 구분

- 금융상품자문업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판매와 자문의 다음과 같은 구분이 필요함.

< 판매와 자문의 구분 >

구 분	판매	자문
정보제공	특정 금융상품	포괄적 금융상품
적용업무	상품판매	자산관리, 재무설계
서비스 기간	특정시점	다기간
수수료	판매수수료(commission)	자문수수료(fee)
준수의무	적합성(Suitability) 원칙	신인의무(Fiduciary Duty)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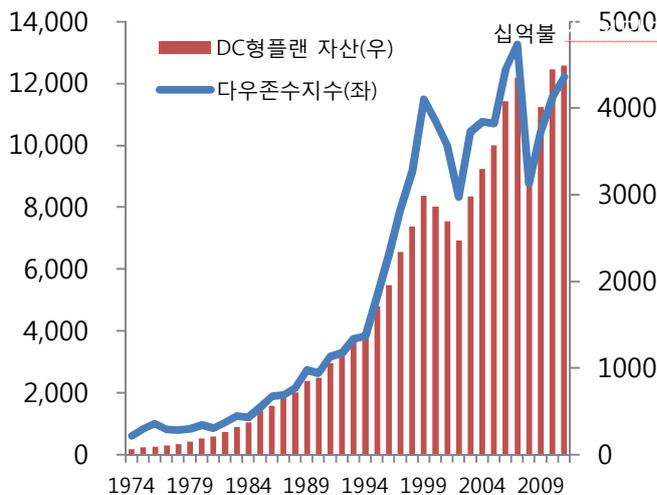
- 즉, 자문은 상품판매 비부수성, 상품 및 시점의 불특정성, 수수료의 형태, 준수의무 면에서 판매행위와 구분됨.

### Ⅲ. FP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

#### ○ 미국의 금융자문업은 퇴직연금 시장과 함께 성장

- 미국의 자산관리시장은 1970년대 富의 축적기에는 금융상품 판매가 시장 우위를 점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과도적 이행기에는 자문이 판매 규모로 성장했으며 2000년대 富의 관리기에는 자문업의 성장세가 판매를 추월하게 되었음.
- 이러한 배경에는 근로자들의 과세대상 소득을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 DC플랜인 401K으로의 자금유입이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인 퇴직연금시장 확대와 깊은 관련이 있음.
- 다우존스지수로 대표되는 미국 투자시장도 DC형 퇴직연금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고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들어 높은 경제성장과 저 실업률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제(New Economy) 현상과 베이비부머세대의 조기은퇴 추세와 함께 가속화되었음.

< DC형플랜 성장과 다우존스지수 >



출처 : FRB Data Stream

< 미국 퇴직연금시장 성장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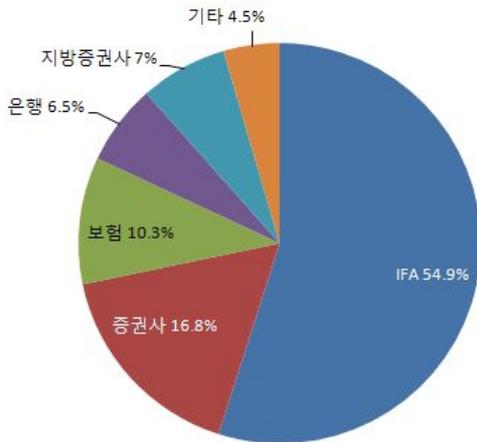


출처 : ICI Research Perspective

#### ○ 미국 금융자문시장을 주도하는 독립계 F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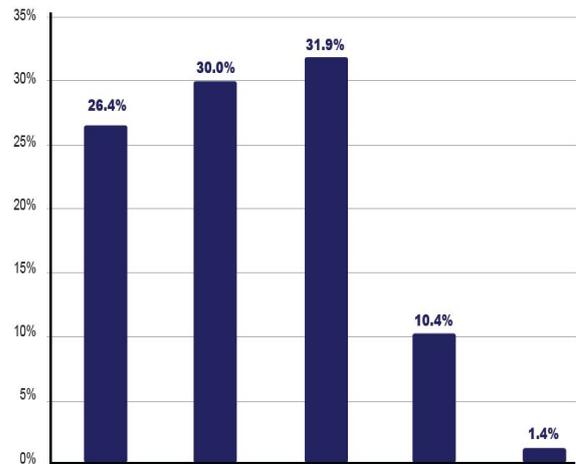
- 미국의 Adviser 채널 중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비중은 약 54.9%를 차지하여 미국에서 금융자문업은 상품판매에 대한 독립계 FP들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고 할 수 있으며 Adviser의 보수도 자문수수료 중심(Fee-only + Fee-based)이 56.4%에 달해 전형적인 자문업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FP 근무형태 >



출처 : Cerulli Associates

< FP 보수형태 >



출처 : Cerulli Assoc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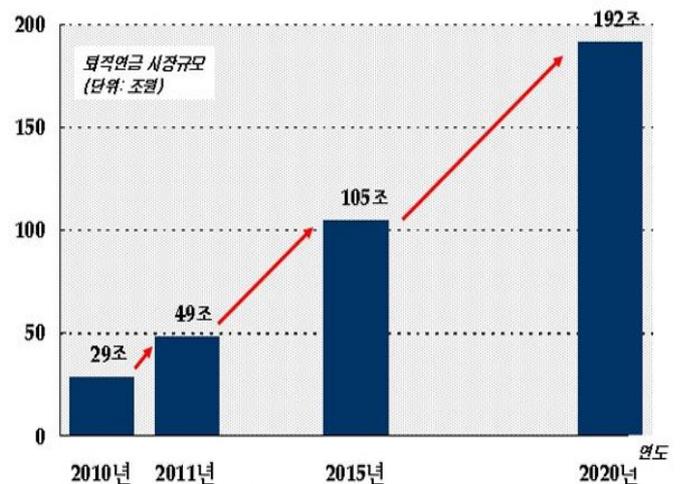
○ FP 비즈니스에의 시사점

- 향후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금융상품자문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국내 금융시장도 초기의 부 형성기의 판매시장에서 과도적 이행기를 거쳐 부 관리기의 자문시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12월부터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2010년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게 되어 향후 퇴직연금시장은 빠르게 확대되어 2020년까지 192조원으로 현재의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퇴직연금 시장의 적립금 규모는 GDP 총액의 104%에 달하는데 한국은 아직 5%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한국 퇴직연금시장 성장전망 >



출처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 그러나 향후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여기에다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과 퇴직연금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종합적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미국에서처럼 독립계 FP들을 중심으로 금융자문업이 성장 발전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변화는 현재 전속 또는 비전속채널의 형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보수형태도 주로 커미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독립계 FP 회사들에게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됨.
- 자문업무가 판매업무로부터 확연히 구분되고 선진적인 보상체계가 도입되면 금융자문업의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 가능하게 되어 미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자문수수료(Fee)에 의한 독립계 FP 회사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 높은 수준의 윤리성 준수

-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기회와 더불어 앞으로 FP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의무를 준수가 요구됨.
- 미국에서는 투자상담사들이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금융 윤리 위반자에 대한 정보와 금융업무 부적격자 명단을 실명으로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되는 등 높은 수준의 윤리규제가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FP들도 고객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원칙을 철저히 준수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에 앞장 서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

**한국 FPSB 최승우 박사 (02-3276-7603, swchoi@fpsbkorea.org)**

#### \* 참고자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금융위원회, 2012.7 보도자료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008. 10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 및 진입규제”, 자본시장연구원, 정책토론자료, 2010. 6. 30

ICI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401K Plans; A 25-Year Retrospective”, Research Perspective, Nov.,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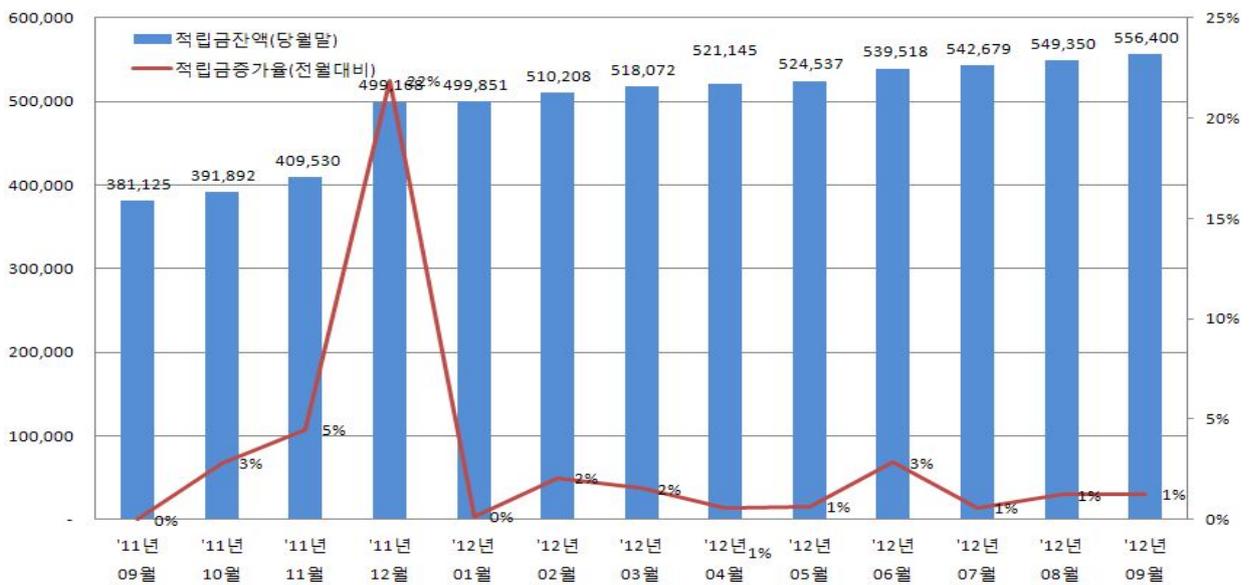
□ 퇴직연금통계 (2012년 9월말)

○ 적립금 규모

- 2012년 9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55 조 6,400 억원으로 전분기 ('12.6 월말: 53 조 9,518 억원) 보다 1 조 6,882 억원 (3.0%) 증가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85,689 개소로 전분기(167,460 개소) 대비 10.9% 증가
  - 全 사업장(1,519,850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12.2%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단위: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111,218	48,407	19,282	4,938	814	1,030	185,689
(B)전체 사업장수	1,273,047	178,396	54,720	10,969	1,425	1,293	1,519,850
도입비율 (A/B, %)	8.7	27.1	35.2	45.0	57.1	79.7	12.2

자료: 금융감독원

□ 洗心錄

□ 성장하고 싶다면 버려야 할 것들

영화 '메멘토(2001년)'에서 주인공은 아내가 살해되던 날의 충격으로 기억을 10분 이상 지속시키지 못하는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가정을 파탄 낸 범인을 찾기 위해 항상 메모를 해두며, 심지어 몸에 문신까지 하며 기억을 더듬었다. 이렇게 영화는 목표 도달을 위해 10분 전 배운 것에 지금 배운 것을 더해가는 주인공의 눈물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배운 것을 더해가면서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 리더십 구루인 존 맥스웰은 성장을 가로막는 여덟 가지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다.

1. 추측의 장벽-'성장은 저절로 이뤄지는 거야': 우연히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장은 결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2. 지식의 장벽-'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성장 방법을 모르고는 모든 사람이 매한가지다. 의도적으로 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워라.
  3. 시간의 장벽-'아직은 때가 아니야': 능장을 부릴수록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바로 지금이 성장을 시작해야 할 때다.
  4. 실수의 장벽-'실수하면 어쩌지': 성장하고 싶다면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5. 완벽의 장벽-'시작하기 전에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 해': 최상의 방법은 일단 시작해야 발견할 수 있다. 길을 찾으려면 계속 움직여라.
- 이외에 '6. 영감의 장벽-성장에 달려들 그럴 기분이 아니야', '7. 비교의 장벽-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낫잖아', '8. 기대의 장벽-이것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가 있다.

내일의 더 멋진 삶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 그것은 성장을 가로막는 일상적인 습성을 바꾸고 버리는 자기 변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 믿는 대로 된다.”**  
**안톤 체호프 (1860~1904) : 러시아 소설가**

#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영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